

뉴스 라운드업

- 트럼프, 호르무즈해협 기뢰 전량 제거·이란에 추가 기뢰 설치 시 즉각 파괴 경고 - WTI -3.12% 급락(배럴당 82.36 달러)
- ECB, 9 월 추가 인상 유력하나 이후 추가긴축 신호는 자제할 방침(소식통) - 이란전쟁발 에너지 충격 대응 성격
- 캐나다, 대미 보복관세 200 억달러 규모 발표(9/8 시행) - 미·캐나다 무역갈등 격화
- 미 7 월 신규주택판매 -10.5%(60.7 만호, 1 월 이후 최저)·8 월 소비자신뢰지수 89.4 로 7 개월래 최저

호르무즈 기뢰 제거 선언에 유가 급락, 미 경기지표 부진 속에서도 위험선호는 유지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국제수역 내 기뢰를 전량 제거·폭파했다고 밝히고 이란에 추가 기뢰 설치 시 즉각 파괴하겠다고 경고하면서, 그간 시장을 짓눌렀던 해협 봉쇄 리스크가 한 단계 완화됐다는 안도감이 확산됐다. 국제유가(WTI)는 전장 대비 3.12% 급락한 배럴당 82.36 달러로 밀렸고, 이 여파로 미국 10 년물 국채금리는 7.7bp, 2 년물은 6.2bp 하락했으며 독일 10 년물도 7.6bp 떨어져 최근 다년래 고점에서 한발 물러섰다. 달러인덱스도 소폭(-0.07%) 밀렸고, 뉴욕증시는 S&P500 +0.32%, 나스닥 +0.66%로 상승했으며 VIX 는 15.46 으로 낮아져 위험선호 분위기가 이어졌다. 다만 이 흐름은 밤사이 미국·유럽 마감 시장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전일 낮 이미 마감한 아시아 증시(코스피 +0.68%, 닛케이 +0.50%, 항셍 -0.02%, CSI300 -0.24%)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았으며 오늘 아시아 개장에서 이 소식에 대한 반응이 확인될 전망이다.

같은 날 발표된 미국 지표는 결이 달랐다. 7 월 신규 단독주택판매는 전월 대비 10.5% 급감한 60 만 7,000 채로 1 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중간 판매가격도 39 만 3,800 달러로 4 년래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다. 8 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89.4 로 7 개월래 최저치로 떨어지며 고금리 부담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계 심리를 억누르고 있음을 보여줬다. 반면 같은 날 공개된 연준 지역은행 할인율 회의록에서는 12 개 지역은행 중 4 곳이 7 월 회의를 앞두고 긴급대출 금리 인상을 원했던 것으로 나타나 매파적 온도가 여전함을 시사했다. 시장이 반영하는 정책금리 경로 역시 9 월 동결이 우세(53%)하지만 인상 확률이 모든 회의 구간에서 소폭 재상승(9 월 47%·12 월 78%·내년 1 월 81%)한 상태로, 약한 실물지표와 여전히 인상 쪽으로 기운 금리 프라이싱이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다. 이는 서베이·정책 신호와 실제 채권 금리 흐름이 갈라지는 최근의 괴리 패턴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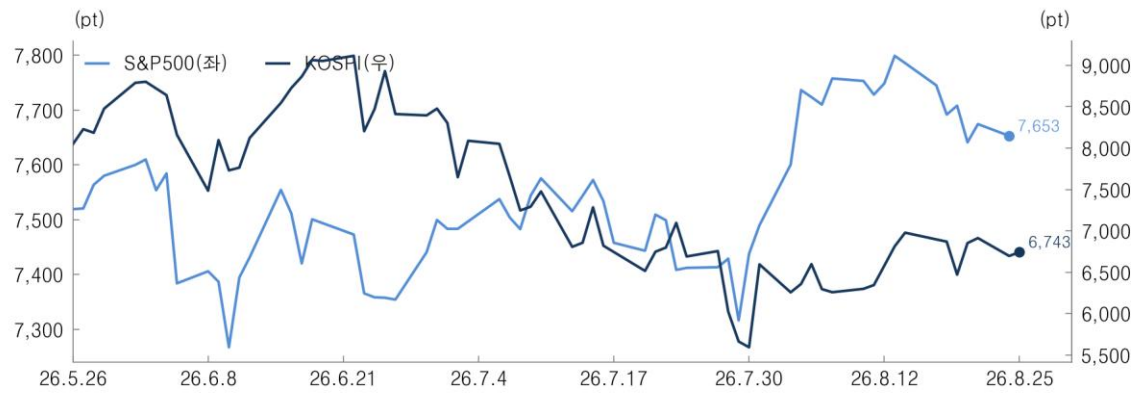
한편 캐나다는 대미 관세 확대에 맞서 9 월 8 일부터 미국산 700 개 품목, 약 200 억달러 규모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기업·근로자 지원 패키지도 함께 발표하며 양국 무역갈등이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ECB 는 소식통을 인용해 9 월 회의에서 이란전쟁발 에너지 충격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한 추가 인상을 단행할 것이 유력하지만, 그 이후 추가 긴축을 시사할 유인은 크지 않다고 전해져 매파에서 데이터 의존적 관망으로 옮겨가는 기존 톤 변화와 부합하는 모습이다. IMF 게오르기예바 총재는 세계 경제가 이란전쟁발 에너지 충격을 우려보다 잘 견뎌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채금리 상승과 디스인플레이션 정책로 드러나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새로운 하방 위험으로 지목했는데, 이는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부각되는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 논쟁과 맞닿아 있어 향후 각국 중앙은행 발언에서 관련 언급이 이어질지 지켜볼 부분이다.

글로벌 주요 자산

자산별 기준 시각 표기 · 직전 확정 종가 대비 · Trading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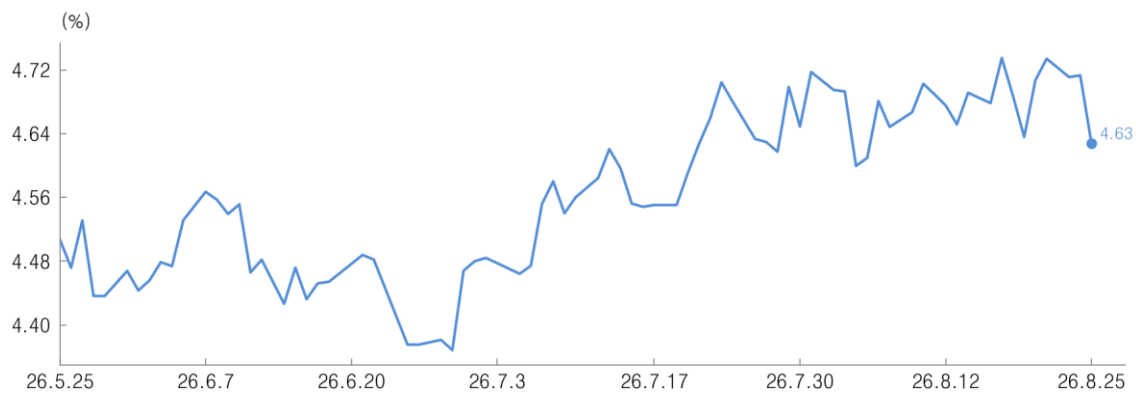
구분	자산	가격	전일 대비	기준
주식	S&P 500	7,677.28	+0.32%	8/25 종가
	나스닥	26,151.29	+0.66%	8/25 종가
	STOXX 600	656.49	+0.35%	8/25 종가
	닛케이 225	65,856.36	+0.50%	8/25 종가
	CSI 300	4,552.03	-0.24%	8/25 종가
	KOSPI	6,742.74	+0.68%	8/25 종가
	항셍	25,511.10	-0.02%	8/25 종가
환율	달러인덱스(DXY)	98.92	-0.07%	8/25 종가
	달러/엔	159.20	+0.01%	8/26 종가
	유로/달러	1.17	-0.04%	8/26 종가
	달러/원	1,380.00	-0.19%	8/25 종가
	달러/위안	6.72	-0.02%	8/25 종가
금리	미국 10 년	4.623%	-7.7bp	8/25 종가
	미국 2 년	4.176%	-6.2bp	8/25 종가
	일본 10 년	2.894%	+1.5bp	8/25 종가
	독일 10 년	3.180%	-7.6bp	8/25 종가
	한국 10 년	4.342%	+0.4bp	8/25 종가
크레딧	미국 HY 스프레드	269bp	-1.0bp	8/24 종가
원자재	WTI	82.36	-3.12%	8/25 종가
	금	4,657.64	+0.15%	8/25 종가
	구리	6.71	+1.65%	8/25 종가
변동성	VIX	15.46	-2.40%	8/25 종가

S&P500 vs KOSPI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미국 국채 10 년물 금리 — 최근 3 개월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권역별 뉴스 다이제스트

권역	요약
글로벌 · 교차자산 뉴스 23 건 HIGH	• 캐나다, 미국 상품 약 \$200 억 규모 보복 관세 단행 — 9 월 8 일 발효 ↳ 700 개 품목 대상 15~50% 관세 부과, 미국의 신규 관세 규모와 동등 수준 대응 ↳ C\$75 억 규모 기업·근로자 지원 패키지 병행, 연방개발은행(BDC)을 통해 기업당 C\$250 만~C\$500 만 규모 무이자 대출 제공 ↳ 캐나다달러 전일 낙폭 일부 회복, 1.3835 달러/CAD 기준 0.1% 상승(캐나다중앙은행(BOC) 금리정책 재검토 가능성을 시장이 가격에 반영) • 글로벌 경제, 이란전쟁 유가 충격 견뎌냈으나 재정 악화·채권 수익률 상승 — IMF 우려 ↳ 전략적 석유 비축 방출·비(非) 걸프 에너지 공급 확대로 유가 충격 흡수, AI 투자 호황의 성장 기대와 에너지 악영향이 팽팽히 대치 ↳ 국채 수익률 상승·물가 둔화 흐름 정체 등 재정 압박 신호 확산 — 모든 국가가 재무·적자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수, 과도한 글로벌 불균형 해결 필요 ↳ 중앙은행들은 물가안정에 총력 집중 유지, 향후 유가 재상승 시 인플레이션·긴축정책 연장 가능, AI 확산의 금융안정성 리스크·저소득국 낙오 위험도 주시 • 글로벌 시장, 미국의 이란 추가 제재 계획 평가절하 — 주식·채권 심리 회복 ↳ 재무장관의 이란 거래국 추가 제재 경고에도 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이미 선반영), 달러 강세·미국 국채 수익률은 제한적 변화 ↳ 시장 관심은 오늘 발표 예정인 엔비디아 2 분기 실적으로 전환 • 발틱 건화물 운임지수, 2 주 최고치로 상승 — 철광석·석탄 운송 수요 회복 ↳ 지수 1.5% 상승해 2,926(8 월 12 일 이후 최고), 케이프사이즈 선박(대형 건화물 전문) 운임 2% 상승 → 4,735 ↳ 대형 건화물 선박의 일일 평균 수입 \$39,442 로 상승(전일 대비 +\$840) • 호주달러, 약한 변동성 속 상향 편향 유지 — RBA 금리정책 초점 ↳ RBA 회의록: 8 월 금리 인상 논의, 필요시 조치 의지 재확인 ↳ 호주 CPI(수요일 발표 예정): 현물 금리에 큰 폭 선반영 없음 → 금리인하 여지 제한적 평가
미국 뉴스 68 건 HIGH	• 트럼프 '호르무즈 기뢰 모두 제거, 이란 재설치 시 즉시 파괴' 경고 ↳ 미 우주군(Space Force)이 해협 전역 24 시간 감시 중, 기뢰 설치 금지 정책 시행 ↳ 오만 외교부, 호르무즈 임시 회랑·안전 항해 조치 근일 내 발표 예정 ↳ 미국, 레바논·이스라엘·사우디·바그다드 대사관 직원 복귀 시작 — 단기 군사 갈등 위험 완화 신호 • 미국 신규 단독주택 판매 7 월 -10.5% (607,000 채, 1 월 이후 최저) ↳ 중위 신규 주택가격 \$393,800 으로 4 년 만에 최저 기록, 고금리가 구매력 주요 억제 요인 ↳ 6 월 대도시 주택가격 +2.1% (시장 예상 +1.7% 상회), 상승률 둔화 추세 지속 • 8 월 콘퍼런스보드(Conference Board) 소비자신뢰지수 89.4 (7 개월 최저), 시장 예상 하회 ↳ 7 월 90.2 에서 -0.8pt 하락, 예상지수 -7.8% 낙폭 (노동시장 전망 악화·인플레이션 우려 반영) ↳ 현재상황지수는 4 개월 만에 개선, 다만 선행 심리 침체로 수요 약세 신호

권역	요약
	• 잭슨홀 심포지엄, 신임 Warsh 연준의장 앞두고 '재정주도' 논쟁 부상 ↳ '재정주도'(fiscal dominance) = 정부의 높아진 차입비용 속에서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 지속 압박받는 구조 ↳ 선진국 정부 차입비용 증가·국채시장 긴장 고조 배경에서 중앙은행 정책 독립성 문제 대두 • 미국-캐나다 무역분쟁 심화, 트럼프 50% 관세 부과 후 캐나다 \$200 억 보복 관세 대응 ↳ 양국 양자협상 8 월 22 일 결렬 후 미국 즉시 관세 시행, 캐나다 신속 보복 ↳ 혼다 등 자동차 제조사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연장 없으면 북미 신규 공장 투자 보류' 경고 — 산업 불확실성 확대 • 연준 내부 분열 신호, 12 개 지역은행 중 4 개 7 월 회의 전 기준금리 인상 투표 ↳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9-3 투표로 현 수준 유지 결정, 적어도 1/3 이상이 인상 필요성 제기 ↳ 보스턴 연방준비은행(Boston Fed) Collins 총재도 '인플레이션 계속 높으면 곧 금리 인상 필요' 언급 — 정책 방향 불확실성 • 10 년물 국채 수익률 -6bps → 4.641%, 유가 4% 급락이 주요 배경 ↳ 재무장관의 국채 재매입 정책 확대 + 이란 제재 완화 신호로 유가 하락 요인 ↳ 약 \$690 억 규모의 2 년물 국채 매각은 수요 견조, 시장 신용도 유지 신호 • 미국 달러 약보합 주이, 국채 재매입·이란 제재 이슈로 약세 압력 ↳ 유가 하락이 주요 달러 약세 요인, 아시아 외환시장은 Warsh 연준의장의 잭슨홀 연설 주시 • 미국 주식시장 반등, S&P 500 +0.19%, Nasdaq +0.45% — 기술주 선도 ↳ 유가·채권수익률 하락이 주가 부양,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 AI 주 쏠림 ↳ Dick's Sporting 연간 실적 전망 하향 조정으로 낙폭
유럽 뉴스 13 건 HIGH	• ECB 9 월 금리 인상 기정사실화, 이후 추가 긴축 신호는 제한 기조 ↳ 6 월 거의 3 년 만에 첫 인상 이후 9 월에 두 번째 인상 예정, 에너지 가격 급등의 경제 전반 파급 차단이 목표 ↳ 유로존 인플레 약 3%, 이란 분쟁 지속, 경제 성장 견조하나 정책 당국의 9 월 이후 추가 인상 신호 의지는 극히 제한적 • 유로존 채권 수익률 15 년 고점에서 하락, 유가 약세·이란 제재 영향 ↳ 독일 10 년물 수익률(유로존 벤치마크) 3.222%로 -3bps, 지난주 고점 3.275%에서 후퇴 ↳ 유가 하락과 함께 미국의 이란 제재가 군사 확대보다 낫다는 시장 평가로 위험회피 수요 완화 • 영국 소비자 인플레 기대 8 월 급등, 에너지 가격 광범위한 파급 우려 ↳ 12 개월 인플레 기대 3.9%(7 월 3.4%), 장기 기대 4.1%(7 월 3.7%, 4 월 이후 최고) ↳ Citi 는 향후 수개월 인플레 상승을 '매파적 신호'로 평가, 영국중앙은행(BoE)이 인플레 기대 고착화 여부 모니터링 중 • 파운드 6 개월 고점 근처 유지, BoE 금리 인상 기대가 버팀목 ↳ 파운드 \$1.3632 수준, 정부 부채 우려 속에서도 지난 4 주간 강세 지속 ↳ 정책 당국의 연내 금리 인상 기대가 주요 지지 요인, 애널리스트들은 연말로 향하면서 상승세 완화 가능성 제시

권역	요약
	• 벨기에 8 월 기업 신뢰지수 악화, 유로존 경제 심리 악화 신호 ↳ 신뢰지수 -13.2(7 월 -11.9), 유로존을 선도하는 벨기에의 기업 심리 하락 ↳ 제조업 -17.8, 건설 -7.7, 소매·무역 -5.2 등 전 부문 동반 악화 • 유로/노르웨이 크로네 환율 11 주 저점 탈출, 유가 약세 주도 ↳ 환율 10.84 에서 10.90 으로 상승, 유가 하락이 주요 원인 ↳ 노르웨이 크로네는 석유 수출국 통화로 유가 약세 시 약화 • 유로, 스위스프랑 대비 수년 저점 탈출, 통화정책 분기 반영 ↳ ECB 는 인플레이 억제 위해 금리 인상 진행 중, SNB 는 금리 동결(0%) 유지로 정책 방향 상이 ↳ 이 같은 정책 분기가 유로 약세 추세 반전 견인 중, 유로/스위스프랑 환율이 향후 방향 결정 임계점 접근
일본 뉴스 4 건 HIGH	• 일본 국채(JGB) 수익률 2.93% 급등에 글로벌 투자자 기록적 자금 유입 ↳ 일본 채권 상장지수펀드(ETF) 올해 순유입이 \$150 억으로 역대 최대 ↳ 10 년물 JGB 수익률이 8 월 중 2.93%로 1990 년대 중반 이후 최고 기록 ↳ 모닝스타 고정수익 전략 수석담당자는 JGB 수익률 상승이 유럽 투자자들의 고정수익자산 수요 및 달러자산 다각화와 일치한다고 분석했으나, 상당수 시장 참가자는 채권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을 경고 • 혼다, USMCA 미연장 시 북미 신규 공장 건설 중단 가능성 ↳ 혼다 경영진이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연장이 불투명할 경우 신규 공장 건설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워싱턴에서 표시 ↳ 혼다는 현재 북미 생산 능력을 거의 완전히 활용 중이므로 신규 공장 확보 필요 ↳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멕시코와의 USMCA 재협상 진행 중
EM 기타 뉴스 21 건 HIGH	• 헝가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25bp 인하, 9 월 물가 이후 추가 인하 여지 ↳ 기준금리 5.5%로 인하, 3 개월 연속 인하의 세 번째이며 물가 급락이 배경 ↳ 2026 년 하반기와 2027 년 중 물가가 3% 목표선 이하로 유지되고, 2028 년 상반기에 목표로 복귀할 전망 ↳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재검토 진행 중, 가을 중 시장에 결론 공개 계획 • 우크라이나 전직 국방장관, '전쟁에서 천천히 지고 있다'는 경고 제기 ↳ 지난달 해임된 미하일로 페도로프 전 국방장관의 로이터 단독 인터뷰 ↳ 패배를 막으려면 수개월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지적, 전반적 승리 전략 부재와 부패·혁신 부족이 군사 작전을 저해 중 ↳ 젤렌스키 대통령은 페도로프의 선거 출마 축구를 거부한 상태 • 러시아,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의 5 척 선박과 항만 인프라 공격 주장 ↳ 러시아 국방부가 피브덴니 항구 화물선 3 척·탱커 1 척, 오데사 항구 화물선 1 척 격침 주장 ↳ 항만 시설과 초르노모르스크 항구 연료 저장 시설도 타격했다고 발표 ↳ 로이터는 러시아 주장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없음 • 우크라이나, '2027 년 여름까지 미국 중재 기회 존속' 주장하며 평화안 초안 작성 ↳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유럽 관계자와 함께 한 페이지 분량의 평화 제안서 준비 ↳ 휴전과 자유 경제 지대 조성 등 포함

권역	요약
	↳ 2027년 하반기 미국 대선 국면 진입으로 증재 난항 예상 • 남아프리카 랜드, 국내 경기 악화를 외면한 채 강세 지속 ↳ 랜드 0.4% 상승해 달러당 15.9550 수준 (전일 종가 기준) ↳ 달러 약세 지속과 상품가격 상승으로 신흥시장 자산 수요 견인 ↳ 남아공 중앙은행 경기선행지수 3개월 연속 악화(-1.4% 월간 기준) • 신흥시장 주가 소폭 상승, 중앙은행 결정과 지정학 리스크에 주목 ↳ 신흥시장 주가 상승, 통화는 최근 고점 근처 유지 ↳ 미국의 대이란 제재, 인공지능(AI) 관련주 변동성, 중앙은행 회의 일정이 투자 초점 ↳ 아시아 반도체주가 조정장에 매수 관심 끌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임박
중국 뉴스 1 건	• 중국 7월 태양광 신규 설치량 14GW, 전년 동월 27% 증가 ↳ 2025년 신규 풍력·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매입(FIT) 방식이 하반기부터 시장 기반 가격 책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발사들이 5월 기한 내 프로젝트 완공을 서두르며 1~5월 기록적 설치가 발생했으나 정책 시행 이후 설치 둔화 ↳ 전월(2026년 6월 12.48GW) 대비 월간 회복
인도 뉴스 13 건	• RBI 6월 외환 순매입 재개, 루피 약세에 대한 하단 방어 신호 ↳ 5월 루피 사상 최저 기록(96.96/달러), 중동 지정학 긴장에 따른 유가 급등이 배경 ↳ 4월~5월 순매도(각 -\$8.9억, -\$6억)에서 6월 순매입(+5561백만)으로 방향 전환 ↳ 6월 총 매입 \$308.9억 대비 매도 \$303.3억, 자본유입 흡수와 함께 루피 급락 방어 • 7월 경제지표·유동성 강세, 중동 긴장에도 국내 회복력 견조 ↳ RBI 월간 공보에서 산업·서비스·고주파 지표 강세 지속 명시 ↳ 시스템 유동성 7월~8월 개선 ↳ RBI 평가: 국내경제가 글로벌 악재에 현저한 저항력 입증, 다만 지정학 불안정성·무역 불확실성 지속 우려 • 인도 정부채, 유가 폭락·제재 우려 완화로 수익률 2bp 하락 ↳ 벤치마크 6.94% 2036년물 수익률, 전일 6.8488%로 마감 ↳ 주정부 채권 201억 루피 발행, 최근 수개월 최저 스프레드로 수급 강세 입증 • 에어인디아, 주주사에 \$15억 지분투자 요청 ↳ 손실 누적 악화로 타타그룹·싱가포르항공에 자본조달 요청 ↳ 향후 추가 자본 소요 예상
브라질 뉴스 12 건	• 가솔린 보조금 9월 9일까지 연장, 리터당 0.44 레알 지원 • 10월 대선 앞두고 룰라·볼소나루 진영, 장기금리 인하 방안 대립 ↳ 룰라 진영은 채권 매입으로 금리 인하 추진, 볼소나루 진영은 지출 감축으로 장기금리 인하 추구 ↳ 2045년 만기 정부채 실질금리 약 7.5%로 높은 수준, 브라질 재정 악화 우려로 투자자들이 추가 프리미엄 요구 중 ↳ 10월 4일 대선 예정 • 7월 연방 세수 8.97% 증가로 1995년 이후 사상 최고 달성 ↳ 7월 세수 2,893.46억 레알(약 561.7억달러) 기록, 1995년 통계 개시 이후 가장 높은 7월

권역	요약
	수치 ↳ 올해 1~7 월 누적 세수 6.98% 증가, 룰라 정부 재정건전성 개선 전략이 세수 확대 중심으로 추진 중 • 8 월 소비자신뢰지수 84.7 로 약화, 전월 대비 3.6 포인트 하락 • 비료산업, 이란 전쟁 여파로 황 공급 차질 중 비료가격 안정화 보조금 신청 ↳ 신청 규모 20 억 레알(약 3.89 억달러), 3 개월 기한 지원 요청 ↳ 호르무즈 해협 경유 황 교역이 차질을 빚고 있는데, 세계 황 생산량의 약 60%이 해당 지역을 통과
멕시코 뉴스 3 건	• 멕시코 페소 17 선 급강세, 2025 년 약화 예상(21) 무산 — 수출 채산성 악화 우려 ↳ 경기 부진·미국 무역긴장 속에서도 페소는 신흥시장 통화 중 상위 성과, 2 년 최고가 근처 ↳ 수출 80% 이상이 미국 향인 구조에서 강한 페소로 인한 수출 채산성 악화 • 멕시코 2 분기 경상수지, 1 분기 -\$182.3 억 적자에서 \$89.3 억 흑자로 급반전 ↳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 1.65% • 멕시코 주식 약세 ↳ 라틴아메리카 상품가격 약세·미국의 이란 제재 확대 여파
프론티어 뉴스 2 건	• 스리랑카 국채 경매에서 2030 년·2035 년 만기 모두 10% 이상 수익률 기록 ↳ 2035 년 3 월 만기 국채: 11.70% ↳ 2030 년 8 월 만기 국채: 10.54%

출처: Reuters,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